“교구분권, 교구 內 견제기능 필수”

조기룡 교수, 불교사회연구소 공청회서 기조발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 당연직 의장을 맡으면서 교구 내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구분권 또는 교구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단 내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 교구중심제 실현과 관련해 본사주지의 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의 필요성을 이 같이 역설했다. 조 교수는 9월 13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교구활성화 연구 공청회’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宗家보다 대찰 성격 짙어

조 교수는 현재 교구의 문제점을 ‘교구본사’와 ‘교구자치’로 구분했다. 교구본사와 관련해서는 △종가(宗家) 역할 부족 △문중위주 폐쇄 운영 △재가신도 참여 형식화 △종무행정 전담인력 부족 △본사주지 독단 견제기능 미비 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교구본사는 교구를 아우르는 종가보다는 개별 대찰의 성격이 짙다. 즉 수행과 전법의 기능이 떨어지고, 종무행정의 중심지 역할이 더욱 크다”며 “불교정화 이후 문중 개념이 수행가풍 전승에서 경제적 · 물질적 성향으로 변하면서 문중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교구본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사주지 견제기능 미비를 꼽았다. 현재 본사주지는 종헌종법상 교구종회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 조 교수는 이를 사회에 빗대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맡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조계종 교구활성화’ 주제로
교구본사별 규모 차이 크고
주지 행정권이 입법권 압도
제도적 뒷받침돼야 문제해결



특히 교구종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본사 부주지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의 임명권을 본사주지가 갖는 데다 사찰운영위원회 의장까지 겸임하도록 한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교구 내에서 본사주지의 행정권이 교구종회의 입법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교구 간 성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속 사찰이 가장 많은 직할교구가 가장 적은 23교구보다 12.9배, 승려 수는 36배에 달했다.

“교구 재획정도 고민해야”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 해결방안을 종교 · 행정적 역량 강화로 나눴다. 우선 종교분야서는 말사 단위의 포교를 넘어 교구차원의 자체 포교사업 기획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3직(총무 · 재무 · 교무)에 포교를 추가해 4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분야서 △본사업무가 아닌 교구차원의 행정업무 전담기구 설치 △본사 7직 말사주지 겸직 금지 △교구종회의장 의원 중 호선 △교구종회 감사권 부여 △현행 지방종정법 대신 ‘교구자치법’ 제정 △재가신도의 종무회의 참여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현행 교구구역과 국가행정구역의 미일치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교구 재획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본사별로 창건한 말사의 인위적 교구 획정이 갈등을 유발한다. 총무원과 각 교구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비대 교구의 분구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큰 직할교구의 경우 강남과 강북 또는 인천까지 나누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끝으로 “총무원장 선거철만 되면 ‘교구분권’이 핵심 종책으로 나온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변해버린다”며 “본사주지가 교구자치보다 인사권과 재정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제도변화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토론자로는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 이석심 포교원 차장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8명 확정

10개 분야 20명 지원해 선거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 8명이 확정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9월 11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서 제17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8명의 종회의원 후보를 선출했다. 투표결과 율원에 상덕 스님, 교육에 대현 스님, 포교에 정운 스님, 사회에 철우 스님, 복지에 정관 스님, 문화에 진명 스님, 법제에 정운 스님, 행정에 혜도 스님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오는 10월 8일 전국비구니회가 추천한 8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의 건을 다룬다.

비구니 종회의원선거에는 총 10개 분야 20명의 스님들이 지원했으며, 4명은 서류 미비와 불참 등으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본격 추진

포교원, 9월 4일 편찬위운영령 입법예고… 23일까지

총무원장 편찬위 위원장으로
포교원 · 교육원 등 역량 결집
2020년까지 3개년 사업 계획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포교원은 9월 4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불교성전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공시했다.

〈불교성전〉은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등에서 현대인들이 수지독송해야하는 핵심부분을 선별해 편찬하고 모바일과 뉴미디어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불교성전〉은 일본에서 처음 간행됐다. 근대 불교학의 발전 과정에서 경전을 총 망라한 현대화된 종합집 간행의 움직임이 일었고, 1905년 최초로 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만해 스님 등의 불교성전과 함께 1972년 동국역경원에서 〈불교성전〉을 발간했다. 이후 지금까지 13종 16권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에서 인증한 표준불교성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불교성전〉 편찬을 위해 ‘편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사무국 등이 구성된다.

편찬위원회는 총 21인으로 총무원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으며 수석부위원장에 포교원장, 부위원장에 교육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한다. 연 2회 회의를 통해 〈불교성전〉의 최종 결과물을 승인한다.

기획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기획위원장은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이 맡는다. 월 1회 회의를 통해 불교성전의 각종 내용 수록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총 10인 이내에 자문과 연구조사를 위한 전문위원을 두게 된다.

편찬위원회 사무국은 불교사회연구소와 교육원, 포교원 일반직 종무원과 실무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불교성전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불교성전 편찬 기금을 조성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은 9월 23일까지로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수렴한다.

조계종 포교원 측은 “최근 변화하는 모바일 미디어 등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라며 “종단 차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불교성전 편찬이 한국불교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추석선물과 주는 행복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합니다.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고 주는 마음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정(情)을 담은 선물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나눔’입니다.

아주 오래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객지에서 찾아올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자식이 노부모에게 못 갈 경우 인사를 드리는 것이 효도의 선물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또



나눔-주는 행복과 추석선물 그림 · 조향숙

선물은 조건없는 情 나눔
주는것은 비움의 수행
받아줄 이웃있어 행복

외로운 이웃에게 조건 없는 관심을 가질 때 추석은 풍성해집니다.

선물에 무엇을 바라는 ‘조건’을 담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이 부패예방에 기여했으나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선물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감사의 뜻을 담은 순수한 나눔일 때 의미가 있고 빛이 납니다. 주었으니 받아야 하고 받았으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주는 행복을 멀리하고 ‘받는 행복’에만 집착합니다. 받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갈애(목마름)의 원인입니다. 갈애에서 원망과 미움이 생깁니다. 행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탐심이 분노로 바뀌어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갈애는 번뇌 중에서 가장 심한 번뇌장으로 집착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주는 행복’은 비움을 깨닫는 수행이며 갈애가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산승이 40여 년 전 삼천사에 처음 왔을 때 사하촌에는 춥고 배고픈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천사는 겨우 가람의 흔적만 있는 상태였으나 사하촌 이웃들과 쌀이며 국수와 연탄을 나눴습니다. 그 ‘나눔의 묘목’에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받아줄 이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는 마음은 이웃의 고통을 대신하는 자비심입니다.

〈삼국유사〉권5에 나오는 정수 스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지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라 애장왕 때였습니다. 황룡사의 정수 스님은 추운 겨울날 삼랑사에 갔다 오는 길에 맨 땅에서 해산을 한 거지여인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폭설에 얼어 죽게 된 여인을 안아서 몸을 녹여준 후, 옷을 벗어 여인과 갓난아이를 덮어주고 벌거벗은 채 황룡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 스님의 자비행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무주상의 가르침입니다. 주는 행복은 이처럼 무주상을 깨닫는 무량공덕의 자리입니다. 광명의 자비가 넘쳐흐르는 이고득락의 행복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측은지심의 나눔을 연습하다보면 보살의 공덕을 쌓아 후득지가 나오고 생활 속의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의 무집착을 통과할 때 지혜를 만납니다. 그 지혜는 행복을 끝없이 생산합니다. 올 추석에는 명절이 있어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의 손을 정겨운 마음으로 잡아줍시다. 보름달처럼 환한 마음으로 주는 그 자체가 ‘주는 행복’이자 공덕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불교를 열겠습니다

화합이 필요한 시대, 존중과 섬김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원행스님

기호 2
원행스님

7대 중점 종책

1 소통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2 혁신 대중공의를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3 복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 복지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 교구 중심 교구 중심제 안착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5 불교문화 전통 불교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불교문화 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6 교육과 포교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에 힘쓰겠습니다.
7 회향 지혜와 자비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겠습니다.

수행 이력
1973년 법주사에서 혜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해인사승가대학 대교과, 중앙승가대학교 졸업.
금산사 서래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
안국사, 금산사, 개운사 주지 역임.
제11대, 제12대, 제13대 중앙종회의원,
호계원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2005년 제17교구 금산사 주지(8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제16대 중앙종회 의장 역임.
나눔의 집 상임이사, 지구촌공생회 상임이사 등 역임.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후보
원행스님 선거대책위원회